



**NET MISSION
COMMUNITY**

address:
Casilla 31
Cochabamba
Bolivia

phone: 591-7222-4255
kwangmoonko@hotmail.com

L A S C A R T A S

GREATER THINGS ARE YET TO COME!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갑니다! 사랑으로 이루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역과 동참을 통해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한 전투를 넘어 전쟁을 향해 진격합니다.

볼리비아의 선교지가 물질로 세워지기 보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워지고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이기를 꿈 꿉니다. 벅차오르는 설레임에 깊은 숨을 내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용사들에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달 선교 편지와 연결해서 “사라의 땅” 프로젝트 이야기로 2월 소식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치는 않았지만 그 정도와 크기는 저의 기대를 훨씬 뛰어 넘었습니다.

물론 아직 필요한 전체가 다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1월 선교 편지를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고 2월 한 달 행복한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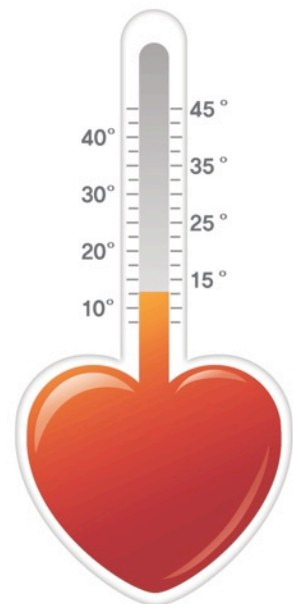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제게 소중한 “치어 리더”입니다. 승리의 현장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지치고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 격려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물질 동참에 감사 인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선교 편지에는 1년에 5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5불이 잘못 적힌 게 아닌가 싶은데 맞는지요. 혹시 잘못 적힌게 아니어도 한 달에 5불이면 커피 두잔만 덜 마셔도 되는 비용인데요. 기본 마음으로 한달에 5불씩 선교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이번 달 부터 한달에 5불씩 헌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5천원의 기적





Vision Statement :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Mission Statement :

기독교 공동체들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굴 양육하며
그들을 믿음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로 세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 4:20)

전 미국 상원의회의 원내 목사님이셨던 고 Richard Halverson 목사님의 글입니다. “처음에 교회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다. 그 후 교회가 그리스로 옮겨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에서 제도가 되었으며, 유럽에서 문화가 되었고, 결국 미국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

교회의 이상향에 대해 말할 땐 어김없이 초대 교회를 말합니다. 아마도 지울 수 없는 항수 같은 것 때문이겠지요? 제 자신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해 봅니다. 나에게 교회와 복음은 어떤 모습일까? 특별히 선교사로서 현지에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복음이 빛을 발하고 있는가? 무엇이 복음이 복음 되는 것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볼리비아는 스페인의 정복과 함께 기독교를 접했습니다. 약 500년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계속되는 찬양은 “사랑”과 “변화”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들의 삶에서 직면한 문제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볼리비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성숙을 위해 치뤄야 할 댓가를 현재 내가 치루고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매일 삶에서 “나를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 하나의 철학이나 제도나 문화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선교 사역이 기업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절대 짧지 않습니다. 능력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더욱 복음이 복음되며, 이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기적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3월 기도 제목

1. “사라의 땅” 농지 경작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이 나무를 자르고 불도저의 평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또한 3월호 선교 소식지를 통해 펼쳐질 농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2. 4월 9-11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선교 컨퍼런스 참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